

박우량 신안군수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초석 다졌다

국회 기부금 법률 개정 통과 주도...모금 방법 제한 완화 기부문화 확산·지방소멸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큰 역할

박우량 신안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통과를 주도하면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있어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 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률 제17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있어 자칫 하면 선거법 위반 등 자유스럽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는 향우들에게 알리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과도하게 규정된 모금 방법의 제한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이 줄어들 수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율이 낮아지고 참여율도 높이지 못하고 제한적인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향우들이 기부하고 싶어도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어떤 형태로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이 고향으로 수원에서 사는 양귀현 씨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고 있었으면 소액이라도 고향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작 참여했을 것인데 생활 전선에서 일하느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알았으니 동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객지 생활 터

전에 전념하면서 애郷심을 가지고 있는 향우들은 대부분 자세한 소식을 얻지 못해 고향사랑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뒤늦게라도 참여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전남지방자치단체장과 전국지방단체장 부회장을 맡은 박우량 군수는 과도하게 규정된 모금 방법의 제한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율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대안으로 국회 법안개정 필요성을 생각하고 관련 법안개정을 완회하는 방안을 찾았다.

박 군수는 지난달 1일 전남 지역 내 지자체장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소병철 의원과 면담을 하고,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 결과 현행 전자적 전송 매체와 향우회,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 규정이 일부 개정되는 데 성공했으며 전국의 객지 고향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상세히 알리고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법률 개정안이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이 섬 지역 상록활엽수 1만여 그루에 색깔 있는 보온덮개를 씌워 '색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이드 가루수에는 노란 덮개를 씌웠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겨울철 꽃·나무 관리 색채 마케팅 눈길

상록활엽수 1만여 그루 방한 작업

섬별 노랑·보라색 유색비닐 씌워

신안군이 섬 곳곳에 조성한 꽃과 아름다리 수목 방한 작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추위에 약한 장도, 비금, 도초, 안좌, 하의 지역의 상록활엽수 1만여 그루에 보온덮개 등 방한 작업을 했다.

세계 최대 섬 정원을 목표로 꽃과 나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와 맞춤형 수목 관리 개발 등 수목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보온덮개는 수목의 보온성뿐만 아니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유박, 양분을 뿌리고 보온덮개와 제조 매트를 덮어 토양 비옥도를 높여 뿌리 발달 촉진 등의 생육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추위를 막기 위해 색연 유색 비닐도 섬별 색채 마케팅에 맞췄다.

인동굴의 섬 하의도는 노란색, 퍼플섬 반월도는 보라색, 수국의 섬 도초도는 파란색, 비금도·옥도 등은 빨간색 등 유색 비닐을 두겹씩 특수 제작해 나무 수관에 씌워 특색있는 경관을 연출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심을 때 정성, 키울 때 극성, 아이를 키우듯 지구 정성의 노력으로 숲과 나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 협의 재개

시의회 추천 변호사 협상단 구성

3월 임시회 동의안 재상정 추진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을 위해 시의회 추천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버스회사측과 추가협의를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협상단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법률전문가 김순호 변호사와 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 등 시 관계자로 재변경됐다.

버스회사측과 13일 1차 협의를 갖고 시의회의 심사의견에 대한 사측의 입장과 설명을 들었으며, 2월 중 주 2회 이상 추가 협의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협상단은 인수인계 계약안 각 조항들에 대해 세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노선권과 관련해 목포시, 시의회, 업체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개사의 평가사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방식 및 평가금액에 대한 추가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노선권 매입액과 관련해 업체측의 금액 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재협상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 지난달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결과 부결된데 따른 것이며, 시는 3월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재상정해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버스회사측과 인수인계 계약 추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시의회 추천 법률전문가인 김순호 변호사와 함께 고심해 업체측과 추가 협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해남군 농식품 수출 활로 찾는다...수출기업 적극 육성

컨설팅·제품개발·홍보 등 지원

LA한인축제 등 해외 마케팅 강화

해남군이 농식품 수출에 한층 속도를 높인다.

해남군은 오는 3월부터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1대 1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밝혔다.

수출전문가를 매칭해 현지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 자문을 하고, 현지 온·오프라인마켓 입점비,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등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

한다.

올해는 신규 수출에 필요한 상차차 비용, 수입·통관수수료 등 부대 운임 비용도 제공한다.

지난해 최대 1000만원이었던 수출포장재 지원을 수출실적에 따라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유품인증 취득 비용과 수출 소모품 구입비도 지원한다.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LA한인축제 참가 지원을 비롯해 해외 상설판매장을 활용한 판촉행사와 오프라인 매장 연계 행사, 해외 농식품박람회 참

가 부스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군은 지난해 수출 도약 원년으로 삼고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수출 확대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즉석발용 친환경쌀 500t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해남 배추 1000t이 캐나다 수출길에 올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는 수출물류비가 폐지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지원을 한층 강화해 수출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가 최근 '완도군 보길(노화) 급수 구역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2027년까지 섬 가뭄 해결을 위한 상수 관로 설치에 나섰다.

완도 보길·노화도 해저 관로로 가뭄 해소

679억 투입 31.8km 관로

2027년까지 상수도 공급

완도 보길·노화도에 오는 2027년까지 육상·해저 관로를 설치해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게 된다.

완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최근 '완도군 보길(노화) 급수 구역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뭄에 시달리는 보길·노화도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679억원을 투입해 광역 상수도 해남 분기점에서 노화읍까지 상수관로 31.8km(육상 관로 21.9km·해저 관로 9.9km)를 설치한다.

노화읍에 배수지 1곳을 설치하고, 높은 곳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가압장도 2곳 설치한다.

이들 시설은 하루 1000㎥의 물을 공급하게 된다.

완도군 등은 올해 기본·실시 설계를 하고 오는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설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저 관로를 통해 광역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등 섬 지역 용수 공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경유차 355대 조기 폐차 지원

무안군이 올해 355대의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무안군은 오는 23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중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 규모는 총 355대(경유차 350대·건설기계 5대)이다.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새 차를 사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무안군 환경과에서 할 수 있다. 우편과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도 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인근 광주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 차량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단속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 방문의 해' 비전 선포식...1000만 관광객 조기 달성

관광 상품 개발·콘텐츠 확충

영광군이 14일 '영광 방문의 해'를 선포하며 연간 1000만 방문 목표를 세웠다.

이날 영광 문화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2024 영광 방문의 해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강종만 영광군수와 강필규 영광군의

회 의장, 기관·사회 단체장, 향우회,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은 '일천만이 찾아오는 맛과 멋의 영광 관광'을 내걸었다.

행사장에서는 관광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방문의 해 비전 선언, 홍보대사 위촉, 관광 분야별 대표자 친필 다짐 선서,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영광군은 방문의 해를 맞아 신규 관광 상품을 개

발하고 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방침이다.

숙박·특산품 할인 행사와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도장 찍기 여행, 도시관광 등을 활성화해 체류형·체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격변하는 관광생태계 속에서 영광의 맛과 멋을 무기로 1000만 관광객 시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형원 기자 kw@

영암군, 3월까지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영암군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어르신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영암군은 군의 27개 고물상과 읍면 마을이장을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지

원자를 선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영암군 각 읍·면에서는 지원 어르신을 찾아가 세부적인 복지 요구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영암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조사원 자료를 토대로 1대1 면담을 거쳐 일자리사업도 제안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9월 27개 고물상을 중심으로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13명을 찾았다. 그 가운데 1명에게는 일자리사업을 연결하고 다른 1명은 집중 사례관리로 살피고 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